

“오디션 아냐”... 트로트예능 홍수 속 묻힐까 보일까

SBS플러스 새 예능 프로그램 ‘내게 ON 트롯’ 오늘 첫방송

순수 인생 철학 담은 ‘트로트’에 집중...차별화된 진정성 담아

가수들의 새로운 도전, ‘내게 ON 트롯’이 트로트 홍수 속에서 새로운 바람 일으킬 수 있을까. SBS플러스 새 예능 프로그램 ‘내게 ON 트롯’ 제작발표회가 15일 오전 11시 진행됐다. 이날 제작 발표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내게 온 트롯’은 경쟁을 벗어나 순수하게 인생의 철학을 담은 ‘트로트’라는 음악 자체에 집중해, 최근 늘어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진정성을 담는다. 트로트에 도전하는 8인의 참가자(채리나, 이정민, 이세준, 서인영, 토니안, 왁스, 배우희, 김동한)는 기존의 창법과 다른 트로트를 소화하기 위해 남모름 고충을 겪었다. 그 고충도 고스란히 담는다.

트로트에 도전하는 채리나는 “이 프로그램은 경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매회 사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거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 인생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들었다. 너무 기쁘게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채리나는 “나는 지금까지 보컬

레슨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급하게 배우다가, 이번에 트로트를 배우면서 보컬을 배웠다”라고 했다. 이어 “발전하는 느낌을 받았고 너무 재미있었다. 몇 초절만 부르던 식으로 노래를 하다가 혼자서 완창하려고 하니 힘들었다. 합주도 처음이고 인이어가 낯설다보니 힘든데, 끝에는 정말 많이 늘었다” 소리를 듣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인영은 “사실 트로트와 너무 거리가 멀고 매회 촬영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생각보다 길게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로트를 부르며) 부모님에게 효도도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을 불러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배우면서 더 음악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았다. 도전하 스트레스만 받을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즐겁다”라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

그를 달샤벳 출신 배우희는 “결

그룹을 할 때는 만연시 라인이었는 데 이렇게 멋진 선배들과 함께 막내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도전정신이 강한 저의 새로운 도전을 즐겁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MC윤정수는 기존 트로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트로트 오디션이 아니다. 출연자들은 자기 장르에서 자신의 세계와 노래실력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들이 다른 세계에 도전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자존심을 걸고 도전한 모습을 봐달라. 나도 진행하면서 저 친구가 이 도전을 만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보니 재미있었다. 그 점을 봐달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SBS플러스 제작국장은 “첫회 녹화에 트로트 작사가 한 분이 패널로 나와서 서인영씨의 노래에 대해 ‘이것은 발트로드’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알고 보니 ‘서인영표 발트로드+트로트’라는 의미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국장은 “가수들마다 자기의 색깔, 개성을 가지고 트로트를 해석하는 거다. 이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자신만의 색깔이 될 수 있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로트 자체도 있지만 가수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본다면, 기존 트로트 프로그램과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리상자 출신 이세준은 “우리 프로그램은 뽀빠기나 경연에 초점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트로트를 옆에 두고 생활한 가수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본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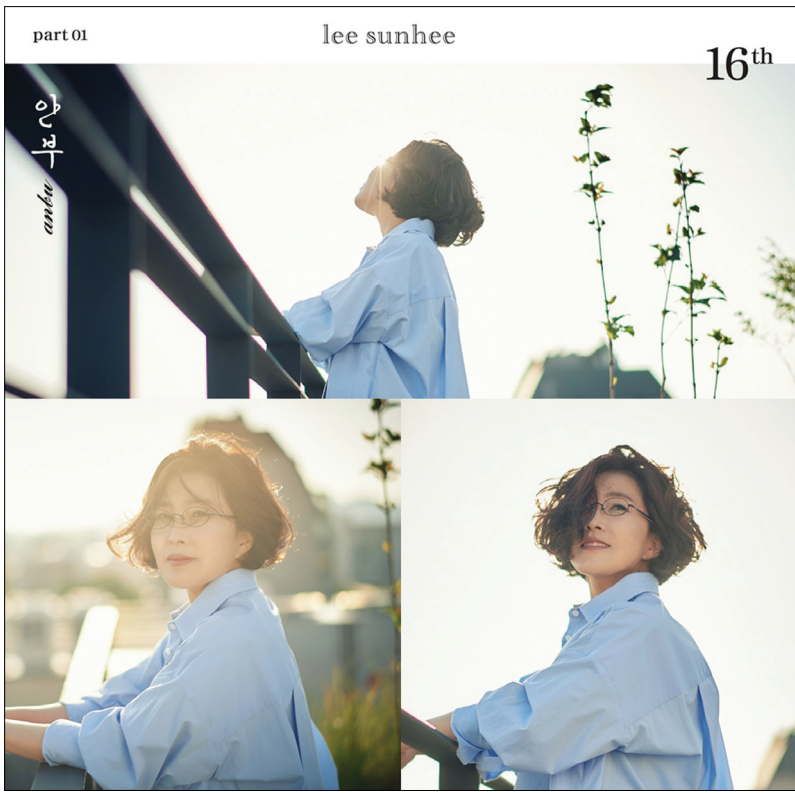
순간이나 트로트 가수가 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음악적, 삶의 영역도 다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 트로트 예능과 달리 경연 중심이 아닌, 가수들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성장스토리를 보여준다는 ‘내게ON트롯’이다. 기성 가수들이 자신들의 분야를 떠나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차별화된 서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래 실력은 물론 매력까지

갖춘 이들이 새 장르를 만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궁금해진다. 다만, 방송가를 뒤덮은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피로감과 기사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미스트롯’ 시리즈를 중심으로 채널을 분분하고 트로트만 들리는 요즘 TV다. 이 사이 ‘내게ON트롯’이 어떻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오후 9시 SBS플러스 첫방송.

이선희, 6년만에 16집으로 귀환...힐링송 ‘안부’ 발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 따뜻한 감성·보컬로 위로



‘국민 디바’ 가수 이선희가 몽클한 감성을 담은 힐링송 ‘안부’로 6년 만에 귀환한다.

15일 오후 6시 이선희는 16집 ‘Part 01, ‘안부(anbu)’’를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발표했다. 이선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대한민

국 국민들에게 세월을 거스르

는 따뜻한 감성과 보컬로 위로를 건넨 전말이다. 지난 2014년 15집 ‘세렌디피티’(SERENDIPITY) 이후 6년 만에 돌아온 이선희는 정규 16집 전곡을 작사, 작곡함을 물론 전체 앨범의 스토리까지 직접 프로듀싱하며 발라드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6곡을 선보인다. 특히 이

선희는 이번 16집에서 남다른 감성과 깊이 있는 해석이 새겨진 음악들을 통해 음악인의 열정을 고스란히 선사한다.

무엇보다 이선희는 이번 16집 앨범의 기본을 ‘우리의 삶과 일상의 연대’로 삼고, 이선희의 지난 역사와 새로운 음악의 연대, 이선희의 오랜 팬들과 처음 접하는 젊은 팬층과의 연대를 표방했다.

특히 앨범 타이틀이자 타이틀 곡이기도 한 ‘안부’는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에,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한다. 모두가 힘든 시기,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좋은 시간, 좋은 날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이선희의 생각을 글로 적어 곡을 만든 것.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이선희가 건네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안부 메시지가 공감 가득한 힐링을 안겨줄 전망이다.

‘안부’에는 그룹 예소(E·X·O) 찬열이 피쳐링으로 참여, 이선희 특유의 따뜻한 보이스에 담백함을 더하며 환상적인 화음을 탄생시켰다. 더욱이 이번 콜라보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고민하던 이선희가 그동안 눈여겨보던 찬열에게 직접 연락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직접 랩 가

사를 쓰며 열정을 불태운 찬열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과 협업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선희가 6년 만에 선보이는 앨범을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셀럽이 모여 이선희의 노래를 미리 듣고 느낌을 나누는 랜선 청음회가 진행, 지난 12일부터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배우 윤여정, 최화정, 김혜수, 이서진, 이승기, 박신혜, 이상윤, 유아인, 개그맨 유재석, 박나래, 양세형, 후배 가수 찬열, 지코, 오마이걸, 마마무 화사 등이 동참했다. 특히 박신혜는 ‘안부’ 첫 소절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김혜수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로하는 너무나 따뜻한 노래가 될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이선희가 6년 만에 16집 정규앨범으로 돌아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대한민국을 위해 위로를 전하고자 했다”라며 “트로트의 열풍 속에서 가슴을 적시는 발라드곡 ‘안부’가 소소한 일상의 안위를 전하는 위로와 힐링의 노래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선희 16집 ‘Part 01’에는 ‘안부’ 외에도 ‘동백꽃’ ‘봄날은’ ‘연애하듯’ ‘청춘’ ‘낭랑 18세’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김연경의 #연봉 #썸 #올림픽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 서 솔직 답변

김연경이 연봉부터 연애전선까지 모든 궁금증에 솔직하게 답했다.

15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배우 김연경이 출연해 DJ 박명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명수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연경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은 무엇이나”라고 질문했다. 김연경은 “4개국 정규리 그 우승을 했다는 게 기억에 가장 남는다”라며 “간 곳마다 정규리 그 우승을 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공식 질문인 연봉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연경은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내로 복귀했다”라며 “근데 계약이 7월부터 시작이어서 7월부터 월급이 나와 6월은 백수”라고 얘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연경은 “지금 은 예전에 받아놓은 것으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연봉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가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연경은 연봉 3억5000만원이 결정된 것에 대해 “배구에는 셀러라임이 있다”라며 “23억원 안에 선수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동료들이 적게 받아서 다른 선수들 다 나누고 남는 금액인 3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했다.

김연경은 연애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박명수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나. 아니면 썸은 타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김연경은 “썸 몇 명은 타고 있다”라고 얘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연경은 “말 잘못했다”라며 “이렇게 또 하면 기사 엄청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연경은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 MVP를 수상하기는 했지만 메달을 따 본 적이 없다”라며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경기력이나 몸을 유지하고 싶어서인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싶다”라고 말했다.

진태현 ♥ 박시은, ‘동상이몽2’ 하차

배우 진태현이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하차 소식을 전했다.

진태현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월 셋째 주에 시작해서 6월 셋째 주에 떠납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내 박시은과 SBS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이하 ‘동상이몽2’)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진태현은 “6개월간 정말 행복했다”라며 “넘치는 관심 응원 모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류지광 “부모 사업 실패+빚보증으로 학창시절 불우...극단적 생각까지”

트로트 스타 류지광이 ‘비디오스타’에서 과거 고생담을 고백한다.

16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는 ‘200회 레전드 특집! 해자미 광광(狂光) 특집’ 2부로 꾸며지는 가운데, 트로트 스타 류지광이 출연한다.

녹화 당시 감미로운 노래와 함께 등장한 류지광은 특유의 동글보이시로 등장부터 선배님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류지광은 가요계 대선배인 혜은이를 위한 헌정 무대

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을 위한 깜짝 인물을 등장 시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후문.

또한 지난 출연 때 영화 ‘관상’ 이정재 성대모사로 화제였던 류지광은 “오늘 선배님들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개인기를 준비해왔다”며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고

류지광은 앞으로 찍고 싶은 광고로 “라면 광고”를 꼽으며 라면 광고계의 대모인 강부자에게 도전

장을 내밀기도 했다. 연에게 레전드들을 깜짝 놀라게 한 류지광의 느낌감 폭발한 라면광고는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류지광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빚보증으로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며 과거를 회상하던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혜은이를 위한 류지광의 최초 공개 헌정 무대부터 기습 이끈 고



백까지, 동글 저음 트로트 스타 류지광의 활약이 펼쳐지는 ‘비디오스타’의 ‘200회 레전드 특집 2부’ 방송은 이날 오후 8시30분 MBC 에브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